

서울의료원의 8월은 여름보다 푸르르다



서울의료원은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격려방문

서울의료원 환자안심병원 찾기 현장 근무자 의견 청취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월 17일(목) 본원 환자안심병원을 방문해 현장 간호사와 병원 관계자를 격려했다.

박 시장은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을 직접 돌아보며 병상에 누운 환자들을 위로하고 가족 이상의 헌신적인 돌봄을 실천하고 있는 간호사의 모습에 따뜻한 말과 손을 건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자리를 옮겨 시작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는 김민기 서울 의료 원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최초, 최고의 정책인 환자안심병원'을 운영하며 겪고 있는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간호사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 강도와는 달리 낮은 임금과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고 박 시장도 "환자안심병원이 잘 운영되는 것이 모두 여러분의 희생 덕분"이라며 "임금 등 처우 개선에 대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박 시장은 "훌륭하게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서울의료원이 경영에 문제가 있는 지방병원을 인수해 의료 수준을 높이고, 의료기능이 취약한 제3세계 의료지원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의료원 소식

개도국 보건의료 지원사업

“해외 의료봉사의 올바른 모델
제시한다.”

서울의료원, 해외 의료봉사를 통한
선진 의료기술 전수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은 지난 7월 13일부터 21일까지 총 7박 9일간의 해외 의료봉사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복귀했다.

이번 해외봉사는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지원사업으로, 본원 의료진 7명, 서울시립대 봉사단원 31명 등 총 40여 명으로 구성되어 선진 의료기술 전수와 교육 봉사활동, 문화교류사업 등 서울시의 의료와 교육을 대표하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뜻

깊은 행사이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의료원, 보라매후원회는 앞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해외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앞장설 예정으로 서울의료원 김민기 의료원장은 “이번 해외 의료봉사를 통하여 대표 공공병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함과 동시에 현지민에 대한 선진 의료기술 전수는 물론 현지 의료진의 초청 연수까지 진행하여 해외 의료봉사의 올바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의료원은 2012년, 2013년에 이어 키르기스스탄 제1시립병원을 찾아 진료, 검사, 수술 등 진료 전 과정을 소화하며 선진 의료 시스템을 체계하게 했으며 지난해 초청 연수 대상이었던 현지 의료인에 대한 재교육을 시행했다.

또한 올해는 키르기스스탄 국립병원도 의료봉사 일정에 포함하여 보다 많은 현지 의료인이 선진 의료 기술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서울시 아토피 교육정보센터

2014 제1회 아토피·천식 아카데미 성료

예방부터 치료·관리까지, 참석자 큰 호응

서울시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센터장 김규상, 서울의료원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7월 9일(수) 본원 대강당에서 아토피피부염을 주제로 초등학교 보건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건소 담당자 등 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제 1회 아토피·천식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아토피 질환(피부염, 천식)의 예방은 물론 환자가 보다 질 높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본 행사에 참석한 보육교사 이미선(가명·38)씨는 “교육정보센터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줬다.”며 “아토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아이들 관리법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강의는 김규상 교육정보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 소아 청소년과 영애제 주임교장의 아토피피부염의 치료와 관리 ▲ 교육정보센터 최수연 교육 간호사와 김수연 영양사의 아토피피부염의 피부보습 및 목욕 / 영양관리 ▲ 서울의료원 김주현 임상심리 전문가의 아토피피부염의 심리적 접근 ▲ 서울의료원 조미래 의료 사회복지사의 부모와 아이의 자존감 향상 · 스트레스 관리 등 열띤

강의가 진행되어 100여 명의 참석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아카데미를 마치고 김규상 교육정보센터장은 “서울은 물론 전 국민의 아토피·천식 질환에 대한 꾸준한 교육활동을 통해 알레르기 질환의 적절한 예방과 치료를 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2회 아토피·천식 아카데미는 오는 9월 24일(수) 서울 시청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아토피·천식 화목교실

“내 아이 아토피·천식, 이렇게 관리하세요.”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하는 화목교실!**

언제? 매주 화요일, 목요일 11:20~12:00
어디서? 교육정보센터 내 교육실
대상? 알레르기 질환에 관심 있는 부모님과 아이들 모두
무슨 내용일?

시간	화	목
11:20 ~ 11:40	알레르기 질환 (천식, 비염)	아토피피부염 (피부보습·목욕)
11:40 ~ 12:00	식품 알레르기	단계별 이유식

• 천식과 비염은 계주로 돌아가면서 진행됩니다.
• 교육이 끝나면 알레르기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서울의료원 02-2276-8191
평일 AM 9:30 ~ PM 5:30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2년 연속 1등급 의료기관 선정

심평원 2013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적정성 평가서 최우수 등급 받아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 실시한 '2013년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적정성 평가'에서 지난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1등급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환자들의 독립적인 사생활 공간 확보, 위생 시설, 지역사회 연계 및 복귀 유도를 위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지난해 4~6월 중 의료급여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대상인 전국 461개 기관을 대상으로 ▲ 구조 영역(시설, 인력) ▲ 진료과정 영역(약물, 정신요법, 재활 치료) ▲ 결과 영역(입원일 수, 재입원율, 외래 방문율) ▲ 모니터링 영역(입원유형, 외박실시율, 재입원율, 지역사회연계, 환자 경험)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개별 항목에 대한 평가 후 결과를 종합해 1~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2013년 평가에서는 전국 14개 의료기관이 1등급을 획득했고 이 중 서울소재 종합병원은 서울의료원을 포함한 단 2곳이 선정됐다.



서울의료원 소식

서울시 산하 금천 외국인 근로자센터 의료지원

서울의료원, 금천외국인 근로자센터 찾아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은 의료소외계층인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난 7월 17일(목) 금천외국인(금천구 가산동 소재) 근로자센터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무료진료에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총 20여 명의 의료진과 최첨단 이동검진차량 1대 동원돼 진료와 검사 등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시행, 보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진료환경을 제공했다.

행사에 앞서 서울의료원 최재필 공공의료팀장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 건강관리 기회가 줄어들어 따라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노동자가 적기에 진단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여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의료원은 서울시와 함께 대표 공공의료기관으로 소외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진료 뿐 아니라 보건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활동해 갈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무료진료에는 외국인 노동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치과검진, 혈액검사, 흉부 X-ray 촬영 등이 제공되었고 해당 검사의 판독 후 이상자를 대상으로 2차 의료연계가 지원될 예정이다.



신생아 중환자실

2500g 미만의 이른둥이를 살리는 서울의료원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은 미숙아 및 심장이상 등 선천성 질환을 가진 고위험 신생아의 집중치료가 이뤄지는 곳이다. 미숙아 출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미숙아의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병상 수는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주치의인 서울의료원이 대표 공공병원의 본분을 다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4년 신생아 중환자실을 개소하여 운영 중이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신생아 담당 전문의는 물론 중환아 담당 간호사로 구성된 전문 의료 인력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심전도,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호흡모니터 등 환자별 감시 장치와 중앙모니터 시스템, 고반도 환기기를 포함한 인공호흡기, 복사열 보온기, 인큐베이터, 동맥혈 가스 검사기, 주입 속도 조절 장치, 황달 치료기, surfactant(계면활성제)를 포함한 각종 주사제 등 최첨단 의료 환경을 구축한 상태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적절한 치료비용

현재 신생아 중환자실의 입원비용은 100% 의료보험 지원이 가능하나 입원 치료 시 발생하는 고가의 검사비, 비급여 진료비 등은 보호자로 하여금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공병원인 본원을 이용할 경우 타 병원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치료비로 이용이 가능하다.

소아청소년과 서현주 과장은 "태어나자마자 힘든 치료를 받는 아기를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보호자의 안타까움과 슬픔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힘든 보호자의 상황과 심정을 잘 헤아림과 동시에 의료인 중심이 아닌 아기 중심의 진료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병원간호사회 순회학술강연

2014 서울시병원간호사회 순회학술강연 '간호사의 자기돌봄'

간호부(부장 이인덕)는 지난 7월 21일(월) '2014 서울시 병원간호사회 순회학술강연'을 본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삼성의료원, 서울성모병원, 원자력병원 등 15개 의료기관, 총 300여 명의 간호사들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받았다.

진행은 서울의료원 이진자 병동간호팀장이 맡았으며 초빙강사는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교수이자 한국영성심리연구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오원웅 교수가 강연, '간호사의 자기돌봄'이라는 주제로 3시간 넘는 시간동안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현장에서 만난 김소영 간호사(35·노원구)는 "환자들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했다."며 "참여한 간호사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 자기 위안과 힐링을 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자투리 TALK . 1

'우리 진반 줄입시다.'



식판 찹쌀뜨물!!

딱 먹을 만큼만!

진반을 줄여서 환경보호, 지구 지키기에 함께해요!

하나의 커다란 그림을 만드는 **동그라미**

행복한 병원을 설계하는 사람들

일선에서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팀이 있다면, 뒤에서 묵묵하게 그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울의료원이라는 커다란 그림을 만들기 위해 머리와 가슴으로 행복을 설계하는 사람들, **유승원 총무부장, 도용원 총무팀장, 김성일 기획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나에게 서울의료원이란?

나에게 서울의료원은 함께 하는 가족입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살림을 잘 꾸리겠습니다.

소감

새로운 자리로 옮긴다는 것은 새로운 일을 접하게 된다는 시작의 설렘도 동반하지만 책임감과 부담감도 함께 느껴지기도 합니다. 병원살림을 잘 꾸려나가기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주어진 일과 맡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많은 생각과 끊임없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목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과 여러 직종의 전문적인 지식, 기술이 서울의료원이라는 하나의 장소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 분들이 자신의 맡은 일을 정확하게,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서울의료원은 장족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료원의 성장과 함께, 앞으로는 더욱 복잡한 업무프로세스 속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었지만, 보다 높은 곳을 향해 발전하는 '서울의료원'을 위해 앞으로도 각 부서,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는 직원 분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서울의료원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직원간의 신뢰와 동료의식입니다. '나'보다는 '우리', 그리고 '서울의료원'을 생각하는 것은 물론, '오늘'보다는 '내일'을 고민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의료원도 개인도 함께 발전해 나가는 '서울의료원'이 되기 위해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 총무부장 유승원



좋아하는 음식은?

취포를 좋아합니다!



즐거듣는 음악이 있으신가요?

외국가수 : Autograph - Turn Up The Radio
국내가수 : 벅스트 - 날아라 병아리

서울의료원 총무팀장 도용원

서울의료원 총무팀은
‘소통의 창’이다!

마음과 지식이 공유되는 과정 속에서
직원들의 업무 만족감과
행복감도 키울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소감

새롭고 힘찬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앞에 하였던 이전 선배님들 못지않게 변화와 더불어 직원들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병원의 총 지원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 윗분들을 잘 보좌하고 타 부서의 문제 해결 접점 부서로서의 역할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표

총무팀 직원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부서로, 또 상하 수평적으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부서를 만드는 매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팀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필요합니다. 어떤 업무이든 그 일의 시작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되기에 서로의 맘이 교류될 수 있는 일터가 되도록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직원 여러분

총무팀은 병원 살림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부서로, 성실함을 바탕으로 한 신뢰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때문에 총무팀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에 있어 주어진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소신 및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혹 형평에 맞지 않아 문제가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총무팀장(7082)에게 전화하면 끝!

좋아하는 음식은?

카라멜마끼아또

즐거듣는 음악이
있으신가요?

정태춘 - 북한강에서



서울의료원 기획팀장 김기하

서울의료원 기획경영팀은
‘양파’다!

양파 껍질과 같이,
해도 해도 끝이 없을 정도의 업무량은 물론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순탄하지 않은 업무가 기다릴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소감

서울의료원이 발전하는데 기획팀은 중요한 부서 중 하나입니다. 그러한 부서의 팀장으로 발령받은 것에 대한 책임감과 제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서로 교차되고 있습니다.

목표

개인적으로 기획경영팀은 서울의료원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서 심장이 가장 중요하듯이 기획경영팀에서 사업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서울의료원의 발전 방향도 함께 간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진들께서 2년 내에 의료수익 1,000억, 외래환자 2,500명을 돌파하실 수 있도록 기획경영팀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직원 여러분

기획경영팀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의 서울의료원은 어떤 곳이다’라는 청사진을 그리는 기획파트, 두 번째는 병원이 흔들리지 않게 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잡는 경영파트입니다.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상급기관(서울시, 서울시의회)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수입니다. 상급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제출 기일이 매우 짧으므로 저희 부서에서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즉시 도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아이스크림

즐거듣는 음악이
있으신가요?

김기하 - 나만의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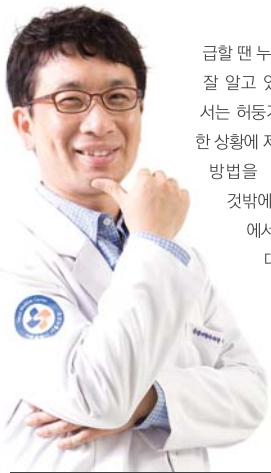


서울의료원 소식

>>>건강 TIP

당황하지 마세요! 응급상황 대처법

도움말 응급의학과 박상현 과장



급할 땐 누구나 당황합니다. 평소엔 잘 알고 있던 것들도 응급상황에서는 허둥거리기 마련입니다. 긴급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숙지하고 연습해 보는 것밖에 없을 텐데요, 응급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일차 처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혈을 위한 ○○가루, 이물질 'NO'



상처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타박상(부딪혀 멍들), 찰과상(살갗 벗겨짐), 열상(뺨어짐)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피부가 벗겨지거나 찢어진 경우는 피부조직의 손상이 있어 피하조직이 노출되고 출혈이 생기는데, 이 때 지혈을 위해 여러 가지 가루, 이물질을 상처에 바르거나 뿌리면 오히려 봉합술 과정을 지연시키고 이후에 상처가 더디 낫거나 감염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소독 솜 보다는 깨끗한 수건이나 거즈로 덮고 10분 정도 눌러주면 대부분 쉽게 지혈되며, 이후에 출혈 부위가 흠이나 다른 물질로 오염이 되었다면 흐르는 수돗물에 씻어주도록 합니다. 만일 날카로운 물건이나 파편에 찔려 이물질이 피부에 박혀있다면 현장에서 제거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출혈은 적절한 압박만으로도 지혈이 가능한데, 출혈부위의 뒷부분을 지혈대나 고무줄, 끈 등으로 묶고 오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묶은 부분의 아래쪽으로는 혈액공급이 차단되어 심각한 손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특별히 상처가 깊거나 동맥손상 등 대량 출혈의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방법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환자 배 누르는 건 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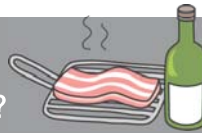
물놀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만약,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였다면, 무엇보다도 안전한 방법으로 구조함이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구조된 사람이 의식이 없다면 빨리 119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젖은 의복은 제거함이 좋지만 심폐소생술이 우선이므로, 구조자가 기본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면 가슴압박과 구조호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구토를 한다면 구토물이 폐로 들어가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환자의 배를 눌러 물을 빼려는 시도는 오히려 구토를 유발하거나 심폐소생술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압박붕대, 너무 세게 조이지 말기



손목을 삐었을 때는 손상부위의 통증과 함께 부종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본처치의 원칙은 네 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①손상된 부위에 부목을 고정해 움직임을 제한하고, ②손상부위에 얼음찜질을 한 후, ③너무 조이지 않도록 적절하게 붕대로 감아주고, ④가능하다면 손상부위를 조금 높게 올려주는 것입니다. 부목고정은 우선이나 막대 자 같은, 주변의 단단한 물건으로 손상부위를 고정해주면 되는데, 이는 이송 중에 손상이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며 통증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얼음찜질을 할 때는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얼음 팩 같은 제품을 너무 두껍지 않은 수건 등으로 한 번 감싼 후 손상부위에 대주는 것이 좋습니다. 얼음을 직접 피부에 닿게 하는 방법은 권장하지 않으며, 장시간 얼음찜질을 하게 되면 피부가 약한 경우 동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화상에 소주?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초기에 화상 부위를 식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간요법으로 알려진 소주를 붓는대거나 치약을 바르거나 하는 것은 전혀 유익하지 않으며, 오히려 손상 부위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먼저 흐르는 수돗물에 적어도 10분 정도 충분히 식혀주면 화상부위의 통증도 줄어주고, 손상의 범위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식혀준 다음에 병원에서 갈 때는 물에 적신 깨끗한 수건 등으로 상처부위를 덮어줍니다. 수포가 생겼다면 터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상부위가 팔이나 손목부위라면 가슴부위보다 조금 높게 해 주어야 하고, 부종이 진행되어 나중에 제거하기 힘들어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지나 액세서리 등은 미리 따로 빼두어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뱀이나 골절



다친 부위를 압박붕대로 감아주는 방법은 부종의 진행도 막아주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으나, 너무 세게 조이지 않게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가 있도록 하는 중요합니다. 손상부위를 가슴부위보다 약간 올려주는 것도 부종의 진행을 늦추어 주는 효과가 있어 도움이 됩니다.

심한 골절에 의해 팔이나 다리의 관절이 아닌 부위에서 꺾이거나 다른 변형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원래의 형태로 복원시키려는 시도가 손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하지 않도록 합니다. 간혹 심한 경우로 골절된 뼈가 밖으로 노출되는 개방성 골절이 발생되면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상처부위를 수건이나 거즈로 덮고 신속히 119에 연락하도록 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더불어 유용한 앱들이 많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각자가 생활관련 응급처치법에 관한 유용한 앱을 몇 가지 받아두고 상황에 맞춰 현장에서 즉시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에서의 침착한 처치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 2014.05.22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시 온라인 뉴스 '서울톡톡'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타임머신 2011.03.25



서울의료원 새병원 진료시작

신내동 새병원으로 이사 온지 벌써 1,226일(08.01 기준)째 되는 날입니다. 개원 첫 날 500여 명의 시민이 찾아주셨던 서울의료원이 이제는 일일 외래환자 2,000여 명을 넘어서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날의 설렘이 기억나네요.



2011.5.25. 신축병원 개원식 모습



우리 다함께

서울시소식

서울시,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으로

새로운 삶 준비하세요.”

한 달에 110~130만원을 버는 최00씨는 2010년 5월부터 3년 동안 꾸준히 자신의 월급의 일부를 희망플러스통장에 저축한 결과 드디어 꿈에 그리던 전셋집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14(목)까지 2014년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신규 참가자 813가구 모집

서울시는 일정 금액을 적립해 자립의 토대를 마련할 '2014년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813가구를 7.24(목)부터 8.14(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은 자립·자활의지가 높은 근로 저소득시민이 소득 수준에 따라 월 5만원~2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이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추가 적립, 참가자는 자신이 적립한 금액의 최대 2배를 돌려받는 사업입니다.

또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 가구 아동의 교육기회 결핍으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월 3만원~10만원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기관이 일정금액을 추가 적립해 주며, 참가자는 자신이 적립한 적립액의 최대 2배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액은 자녀 교육비로만 사용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번 모집은 '서울희망플러스통장' 415가구, '서울꿈나래통장' 398가구이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관할 자치구별 선발인원과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구청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동부병원 소식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우수검사실 인증 연속 획득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원장 김경일) 진단검사의학과는 최근 진단검사의학재단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주최한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 심사'에서 합격점을 받아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을 획득했다.

우수검사실 인증제는 외부 전문 심사위원들을 통해 전반적인 검사실 운영을 비롯한 진단혈액·임상화학·임상미생물·수혈의학(혈액은행)·진단면역·현장검사 등의 세부항목들을 심사해 검사실의 질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하 동부병원)은 지난 2006년부터 참여해 매회 인증을 받고 있으며, 올해 역시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향후 2년 동안 검사실 신임 인증을 확보하게 되었다.

동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관계자는 "인증 획득은 검사실 업무의



정확성 및 검사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 시키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검사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북부병원 소식

이달의 재활왕은 누구?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원장 권용진)이 재활치료 환자들의 치료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해 '이달의 재활 왕'을 선발한다. 재활 왕 선발 대상은 뇌졸중 등 전문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선발은 재활치료실에서 운동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 시 적극적으로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병동에서 스



스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 환자들에게 재활 왕에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달의 재활 왕'에 선발된 환자에게는 퇴원 시 액자와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첫 번째 '이달의 재활 왕'으로 선발 된 김옥례 할머니(74세)는 "올해 4월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후유증으로 우측에 편마비가 심했으며, 휠체어에 의존해야만 했었는데, 2달 정도 운동치료를 열심히 받으니까 지금은 지팡이만 있어도 걸을 수 있을 정도다."며 "병원에 많은 분들 덕분에 많이 좋아졌다."고 감사를 표했다.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재활의학센터 이주영 센터장은 "재활 치료의 결과는 환자의 노력과 의지에 많이 영향을 받는 만큼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임하는 환자들의 경우 그 효과가 매우 높다."면서 "이달의 재활 왕' 이벤트는 모든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 하루라도 빨리 따뜻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마음에서 준비했다."고 밝혔다.

독서모임 소개

의학도서실 이주현 선생님

서울의료원 독서모임 '서울반디클럽'을 소개합니다.

독서모임 이름은 '서울반디클럽'이고 2011년 11월 11일에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함께 이야기하는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학도서실 연간계획'에 넣었다가, 점차 주변 분들에게 알려지면서 모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4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2명이 되었고 동호회로도 발전했어요.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은 물론이고 음악회, 뮤지컬, 연극, 영화, 창덕궁, 간송 미술관도 함께 가는 문화클럽이라고 할 수 있어요. 7월 말엔 '저자와의 만남'도 준비 중입니다.

그 달의 책은 클럽 회원들의 이름 순서대로 차를 정해 해당 회원이 선정합니다. 예를 들면, 7월 모임에서 '가'님이 8월에 토론할 책을 정하고 회원들은 그 책을 읽고 8월에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8월의 책은 '구베씨의 행복여행'이고 9월의 책은 '화페 전쟁'입니다.



회원들의 취향이 다양해 매달 색다른 책을 접할 수 있어 좋습니다. 서울반디클럽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 12시에 시작이니, 관심 있는 분은 언제든지 점심식사를 갖고 도서실로 오세요.



환경건강연구실 수상

서울의료원 환경건강연구실

김규상 연구팀

근로환경조사 논문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서울의료원 환경건강연구실(실장 김규상) 김규상, 김채봉팀은 지난 7월 9일(수)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7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에서 근로환경조사 논문경진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우리나라 사무직 근로자의 직업관련 특성과 고혈압과의 관련성’을 주제의 논문을 발표한 서울의료원 연구팀은 “이번 결과를 통해 사무직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맞는 근무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논문경진대회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 등의 엄격한 평가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등 총 4편의 우수 논문을 확정했다.

2013 서울의료원 언론보도집 발행

서울의료원 홍보팀(팀장 최지향)은 지난해 언론보도 실적을 모은 ‘2013 서울의료원 언론보도집’을 발행했다.

이번 언론보도집은 신문매체인 일간지, 의학지, 지역지는 물론 텔레비전, 라디오와 같은 방송매체가 포함되었고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의 언론홍보 실적을 총망라하고 있다.

서울의료원 언론보도집은 33개 지역거점 공공병원 소속으로는 2011년 최초 발행, 매년 제작되고 있으며 2013 언론보도집은 4×6배판 크기에 총 769면으로 제작됐다.

문의 : 홍보팀 지승준, 내선 7132



자투리 TALK . 2

‘직원 주차는 지하 3층’

여기는 병원.
그것도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공공병원.
몸보다 마음을 아뜨게 하면 반칙입니다.

레드카드!

서울의료원 가족 여러분~
위급한 환자가 빠르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직원 주차는 지하 3층에 하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도 지킬 줄 아는 서울의료원 가족이

멋져요리~

함께 일하게되어 반갑습니다.

7.01 이은정	핵의학과	7.11 김영미	식당
7.01 김지혜	병동간호팀	7.11 박정숙	식당
7.01 김해리	병동간호팀	7.11 강옥선	식당
7.01 박미나	병동간호팀	7.14 손은주	진단검사의학과
7.01 박수진	병동간호팀	7.14 양지은	진단검사의학과
7.01 배수정	특수간호팀	7.15 유아름	외래간호팀
7.01 설유진	병동간호팀	7.15 김미애	병동간호팀
7.01 소은지	병동간호팀	7.15 강영자	병동간호팀
7.01 오원나래	외래간호팀	7.15 김준희	부설연구소
7.01 이선진	특수간호팀	7.16 류정진	외래간호팀
7.01 이우선	외래간호팀	7.16 유은희	병동간호팀
7.01 이연희	병동간호팀	7.16 이재연	외래간호팀
7.01 정주리	병동간호팀	7.16 정세련	특수간호팀
7.01 황선화	병동간호팀	7.16 정지선	병동간호팀
7.01 정종화	원무팀	7.16 최정현	병동간호팀
7.01 김영자	간호부	7.18 오영희	공공보건의료지원단
7.01 이현주	간호부	7.22 전희은	진료부
7.04 김희정	식당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7.03 김교순	식당	7.15 윤진순	특수간호팀
7.05 한금춘	식당	7.18 김미영3	약제팀
7.07 윤현철	총무팀	7.21 김기라	특수간호팀
7.08 이주연	병동간호팀	7.21 이유미	병동간호팀
7.14 김미애	병동간호팀	7.21 이영주	특수간호팀
7.15 정인경 1	병동간호팀	7.21 광혜연	외래간호팀
7.15 김민	병동간호팀	7.21 정다은	병동간호팀
7.15 손희정	병동간호팀	7.21 이예송	약제팀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7.19 고희정	재활의학센터	7.26 김은혜	간호부
----------	--------	----------	-----

학회 및 연수

2014.07.01 - 2015.06.30	이경복	미국
-------------------------	-----	----

혈관외과영역의 중재적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혈관질환의 치료기법 습득, 최신진단, 치료 및 수술법 습득

2014.07.01 - 2014.07.21	민학진	스페인
-------------------------	-----	-----

척추에 관련된 첨단 수술기법이나 진단기법, 수술장비 등에 대한 소개 및 실습

>> 신규 직원소개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4년 7월 1일부터 핵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은정입니다. 핵의학과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최첨단 의학 분야입니다. 현재 서울의료원 핵의학과에는 암 진단 및 치료효과 판정에 이용하는 첨단 장비인 PET/CT를 비롯하여 뼈 전이암, 골절, 관절염, 골수염 등의 각종 뼈 질환 및 갑상선, 신장, 간담도계 등의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감마카메라, 그리고 심근경색, 협심증, 뇌혈관질환 등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SPECT/CT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암 수술 후 잔류조직 제거 및 재발암 치료를 위한 저용량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그 동안 서울의료원 의료진들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께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친절히 응대해 주셔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고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하게 됨을 무척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핵의학과가 더욱 발전하여 수준 높은 검사와 치료를 수행해 저희 과를 찾는 모든 환자분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의학과, 이은정 과장